

유유동락(類類同樂)

박 창 남*

유난히 추위가 심했던 경인년(庚寅年)의 양력 선달그믐이 되니 생각나는 지난 일들이 많이도 떠오른다. 일반적으로 12월의 제야(除夜)가 되면 짓궂은 일도 많았지만 가는 해를 아쉬워하고 다가오는 새해 신묘년(辛卯年)의 꿈을 꾀보기도 하면서 각종 끼리끼리의 모임이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많이도 열리기 마련이다.

특히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송년회 또는 망년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서라도 가능한 한 참석하기로 하니 별일도 아니면서 제법 바쁜 한달이 된다. 어떤 일이나 물건에 대해 취미가 같아서 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조직이 동호회다보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모임이 새삼스럽게 좋아진다.

동호회(同好會)와 대동소이한 모임에는 ‘동아리’를 비롯해서 동인회(同人會), 동우회(同友會), 동창회(同窓會), 동문회(同門會) 등등이 생각난다. 사람이란 역시 동류의식(同類意識)이 강해서 유유상종(類類相從) 또는 유유상집(類類相集) 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우리 외교협회에도 전·현직 동호회가 무려 23개나 되니 꽤 다양다색한 모임이 많은 편이라고 하겠다. 생각나는김에 전직 동호회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 적어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먼저 생긴 것이 골프동우회이며, 그 첫 모임이 아마도 1982년 10월 경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모임은 작고하신 홍성욱 대사께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 발기하였으며, 그날 모임에는 김용식 장관, 김동조 장관, 이동원 장관, 천병규 장관(재무부)을 비롯하여 장상문 대사, 김인권 대사, 홍성욱 대사 등 10여 명이 참가하여 라운딩을 마친 후, 동호회 회장으로 천병규 장관을 모시기로 하고 모임에는 최소한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매인당 일금 5만원을 각 출기로 결정했다.

그후 동호회 가입비는 세월따라 늘어나고 회원 수도 200명 가까이 되었으나 그중 작고회원도 50명 가까이 된 것으로

* 전주 가나대사

안다. 특히 발기모임에 참가한 10여 명은 이제 거의 모두가 타계하였으며 아마도 저 세상에서 함께 골프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회원 각자부담으로 월례모임에 20명 전후가 참가하여 골프를 즐기고 있으나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매회 스폰서를 해주는 독지가 덕택으로 큰 부담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때로는 대구 경산, 대전 유성과 같은 골프장까지 원정하기도 했다.

그 다음해인 1983년에 등산동호회와 바둑동호회가 발족한다.

등산동호회는 1983년 3월 말에 북한산 자락에서 15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그 당시 최연장자인 장재용 대사를 초대 회장으로 모시기로 했으며, 그후 ‘팔도명산 순례’라는 구호아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명산을 비롯하여 100개 이상의 여러 산을 등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비롯하여 멀리 중국의 황산(黃山), 장가계(張家界) 등까지도 등정하면서 노익장을 과시했다. 지금은 협회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먼 곳 산행(山行)도 당일로 할 수 있으나 1990년대까지는 50% 운임 내는 통일호 열차를 이용하여 대개 1박 2일 산행을 택하게 되었으며 때로는 2박 3일 산행으로 제주도 한라산, 지리산, 남해 금산 등을 등정하기도 했다.

바둑동호회도 1983년에 발기모임을 갖고 문희철 대사를 초대회장으로 모시게 되었고, 윤기현 프로 기사를 초청하여

협회회원 바둑실력을 과시한 적도 있으며, 지금은 매월 모임을 갖는 동호회로서 그 활동이 자못 당당하다.

낚시동호회도 비교적 오래된 동호회이며, 초창기는 열사람 넘는 회원들이 참가하여 월척 낚기를 다투었으며, 특히 주동원, 양구섭 두 회원이 선수 중의 선수로서 때로는 배 월척까지 낚아 올려 다른 회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문예동호회와 학술동호회는 협회 동호회에서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호회이며, 홍승호 회장이나 오재희 회장의 노력이 다대한 동호회라 할 수 있다.

사진·고적답사동호회 덕분에 전국 각지의 고적이나 명승지를 많이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특히 이정남 회장의 성의있고 열성적인 노력으로 고적답사와 동시에 전국 각지의 특산음식도 맛볼 수 있는 행운을 갖기도 한다. 음악·영상동호회 또한 이 회장의 값진 노력으로 각종 영상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해 주고, 특히 협회의 각종활동을 영상화하여 연말에 그것을 감상하게 해주니 크나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기공건강동호회 역시 노년기의 회원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동호회이며 매주 모임을 갖는다.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첨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컴퓨터동호회도 매주 모임을 갖고 협회에 비치된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서 비교적 그 활동이 활발한 동호회라 할 수 있다. 2001년 말 윤영엽 대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발족되어 월 2회의 모임으로 컴퓨터 활용의 기초를 닦는 일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

고, 2대 금정호 회장에 이어 박창일 대사가 금년부터 동호회 업무를 맡으면서 매 주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서예동호회에서는 사계의 권위자 한사람을 스승으로 초청하여 지필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니 노년기의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테니스동호회와 스키동호회(2011년 발족)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 전직 회원의 동호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다.

동호회는 무엇보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아울러 노년기에 각자

의 취미분야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각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달에 한번이든, 일주일에 한번이든 같은 취미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뜻밖에 새로운 소식도 있고 새로운 지식도 얻게 될 수 있는 기쁨과 소득이 있다.

신묘년 새해에는 동호회의 모임에 노소동락(老少同樂)하는 자세로 더욱 많은 비교적 젊은 회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으며, 우리 동호회 회원 모두가 건전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기를 바란다. **외곡**